

<2018년 11월 30일 금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<사랑>이 ‘제일’ 이다.
2. <사랑>이 제일 아름답다.
3. <존재물>마다 ‘사랑할 만한 곳’ 을 가지고 있다. 가령 <소나무를 사 올 때>도 보면, 여러 소나무들 중에 꼬불꼬불하게 생겼든지, 혹은 수형이 멋있든지, 혹은 밑동이 굵든지, 혹은 위의 가지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삼위일체같이 생겼든지, 혹은 사연이 있든지 하면, 그것에 ‘사랑’ 이 꽃혀서 사 오게 된다. <돌을 사 올 때>도 ‘형상’ 을 보고 사 오기도 하고, 혹은 형상이 없어도 ‘단단한 차돌, 흰 돌’ 이라서 사 오기도 한다. <흰 돌>은 ‘그리스도’ 를 상징한다. 그래서 사 온 것이다. 이와 같이 모든 존재물은 ‘사랑의 핵’ 을 가지고 있다. <사랑할 만한 곳>이 ‘제일 아름다운 곳’ 이 된다.
4. <사랑하는 자>를 택할 때도 ‘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’ 을 가지고 택한다. 가령 <얼굴>은 마음에 들었는데, ‘발’ 이 마음에 안 들든지, 혹은 ‘키’ 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. <얼굴>이 마음에 들었으면 그것을 ‘핵’ 으로 삼고 택하는 것이다. 하나님은 ‘예정론’ 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시면서, “<이것>을 보고 예정했는데, <저것>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.” 하셨다. 모든 존재물은 ‘사랑의 핵’ 을 가지고 있다. 고로 다른 것은 별로여도 그 하나 ‘핵’ 을 사랑하면, 다른 것도 사랑으로 보이게 된다.

5. <선(善)>을 행하면 ‘선’ 이 아름다운 것이 되고, <충성>을 하면 ‘충성’ 이 아름다운 것이 된다.
6. <사람의 아름다움>을 볼 때, 여러 가지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. 그중 <사랑>이 제일 아름답다.
7. <사랑>으로 볼 때 제일 아름답다. <사람>도 그러하고, <존재물>도 그러하다.
8. <전도할 때>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‘전도하려는 그 대상’ 을 아름답게 보이게 해서 전도하게 하신다. 그리고 <마음>도, <행실>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신다.
9. <뇌>가 ‘사랑’ 으로 보고 인식하면, ‘사랑’ 으로 보여진다. <사랑할 사람>을 ‘사랑’ 으로 본다는 것이다.
10. 하나님은 ‘사랑’ 으로 보여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일을 하게 하신다.
11. <사랑>으로 볼 때 ‘사랑의 세계’ 를 찾을 수 있다.
12. <미움>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않다.
13. <하나님>은 그 자체가 ‘사랑체’ 이시다.

14. <하나님께 나아갈 때>는 ‘믿음’ 으로도 나아가고, ‘소망’ 으로도 나아가고, ‘회개’ 로도 나아간다. 그러나 결국은 ‘사랑’ 하려고 나아가는 것이다.
15. 만일 하나님께 ‘사랑’ 없이 믿음으로만 나아가고, 소망으로만 나아가고, 감사로만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? <울리는 썩과리>가 되고 만다. <사랑>이 없으면, ‘믿음’ 도 깨지고 ‘소망’ 도 깨진다. 만일 하나님께 믿음도, 소망도 없이 ‘사랑’ 으로만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?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, “껍질을 깐 과일을 금 쟁반에 담아 주는 격이니,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.” 하셨다. <사랑>이 ‘최고’ 라는 것이다. 이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으면, 성령님께서 그 증거로 말씀해 달라고 하니,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“네 실력껏 안 것이 증거이니라. 네 실력은 네가 증거하는 것이다. 이치가 그러하지 않느냐? <두 개>에다 <두 개>를 더하면 ‘네 개’ 가 되는 것이다. 그래서 나 성령도 증거가 되고, 너도 증거가 돼야 한다.” 하셨다.
16. 사랑 하나면, ‘역사’ 는 이루고 끝난다.
17. <사랑의 하나님>이시다.
18. <외적 하나님 사랑>, <내적 성령님 사랑>이다.
19. <삼위일체>는 ‘사랑의 본체’ 이시다. <삼위일체의 대상체>는 ‘메시아’ 다. 그리고 <땅의 사랑의 본체>는 ‘메시아’ 다.

〈그 대상체〉는 ‘구원받은 자’ 다.

20. 구원을 시켰으면, ‘사랑의 대상’ 이 돼야 한다.

21. 〈사랑〉으로 ‘구원’ 시킨다. 〈사랑〉으로 ‘구원’ 을 유지한다.
〈사랑〉으로 ‘존재의 세계’ 를 유지한다.

22. 〈나무〉도 ‘사랑’ 해야 좋아서 계속 관리한다. 〈사랑〉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진다. 〈사람〉도 그러하니, 항상 사랑하며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.

23. 〈자기〉가 ‘자기 관리’ 를 해야 된다. 〈사랑의 관리, 인격 관리, 이미지 관리〉다.

◎ 여기까지 〈사랑에 대한 것〉을 말씀했습니다.

내일은 ‘클라이맥스(climax) 말씀’ 을 또 해 주겠습니다.